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교회학교의 집중적인 영성훈련

여름성경학교 · 여름수련회 시작

거듭남과 신앙 성숙의 계기 될 수 있도록, 학부모 동참해야

천국시민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교육의 목표를 둔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개최한다.

전교인이 한자리에서 수련회를 가지면서 일부의 시간만 할애하여 개최하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각 부서별로 시간, 장소, 프로그램을 달리하여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행사의 전체 주제는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예수님」으로 정하고 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② 변치 않는 사랑의 예수님, ③ 불변하시는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부서별 특성에 맞도록 교재와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교회당에서 개최된다. 프로그램에 따라 매일의 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부서별로 다르지만 첫째날인 20일(목)에는 세 부서가 모두 오전 9시에 시작한다.

한국중앙수련원에서 갖는 중등부 수련회는 7월 24(월)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다. 훈련을 통해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가질 고등부 수련회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8월 7일(월)부터 2박 3일간 가질 예정이며, 대학부는 8월 8일 완태산 기도원에서, 청년부는 8월 13일(주일)부터 강화도에서 각각 3박 4일간 가질 예정이다.

소망부는 8월 중순에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가질 것이며, 사랑부는 7월 27일(목)에 성경학교를 연다. 탁아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7월 8일에 이미 수련회를 가졌다.

계절학교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매주일 교회학교 집

회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하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들을 충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학교를 통해 매주일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거듭남을 체험하며 성숙한 신자로 신앙생활이 진일보하는 귀한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 일에는 학부모의 각별한 관심과 독려가 필요하다.

장년부는 별도의 수양회가 없으며, 내일(17일) 당회원 수련회를 필두로 교회학교 외에도 찬양대, 전도회, 권사회 그리고 교구별로 특별행사를 마련하여 집중적인 영성훈련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교회학교의 여름행사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유치부	김경아 전도사	7월 20일(목) - 21일(금), 2일간	교회당
유년부	최병호 목사	7월 20일(목) - 22일(토), 3일간	교회당
초등부	박종상 전도사	7월 20일(목) - 22일(토), 3일간	교회당
중등부	김재호 목사	7월 24일(월) - 27일(목), 3박 4일간	한국중앙수련원
고등부	김용진 전도사	8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간	가나안 농군학교
대학부	원 호 목사	8월 8일(화) - 11일(금), 3박 4일간	완태산 기도원
청년부	이만열 전도사	8월 13일(주일) - 16일(수), 3박 4일간	강화도
소망부	전호진 목사	8월 중순, 2박 3일간	미정
사랑부	임진태 목사	7월 27일(목)	교회당

'95 하기 농촌전도단

전도단원 훈련과 교육

7월 19일(수) ~ 22일(토), 오전 6시부터

전도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 31일(월)부터 8월 3일(목) 까지 3박 4일간 충남 천안군 용정리로 파송될 '95 하기 농촌전도단의 단원 모집을 오늘로 마감하기로 하였다.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게 될 축조전도팀, 여름성경학교 진행팀, 의료봉사팀, 지역봉사팀의 구성과 훈련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전도단원은 19일(수) - 22일(토), 4일간 매일 새벽기도회 후인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4층 초등부실에서 전도훈련을 받게 된다. 전도훈련은 구체적인 전도전략을 세울 뿐 아니라 성경학교나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와 훈련도 겸하여 하게 된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나눌 비누, 치약, 수건 등 생활필수품들과 차량지원 및 운전 가능한 성도들의 지원도 기다리고있다. 물품은 7월 30일까지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특히 전도단원들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 용정리 주민을 위해,

지난 몇주간 동안 교회는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의 준비로 분주했다. 교사들은 지난 4일 전체 강습회를 통해 주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발달심리에 관한 특강을 들었으며, 지난 주간에는 부서별로 강습회를 갖고 효과적인 여름학교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준비에 힘을 쏟았다. (▼사진은 지난 4일의 교사 전체 강습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농촌전도단의 교육 및 물품 기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교구 담당목사나 전도위원회로 하면 된다.

창세기 강해



이삭과 이스마엘

(25장 12 ~ 26절)

이종운 목사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1.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몸종인 하갈의 몸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열 두 방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16절). 이는 그에게 열 두 아들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북쪽으로부터 애굽과 앗수르 지역에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중동지방에 남아있는 마을 이름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름과 많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늦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40세 되었을 때 리브가와 결혼을 했으나 "리브가는 잉태치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20절).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식이 늦어 고민을 하였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결혼하고 20년이 흐르도록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조금하게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것과는 달리 이삭은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식을 기다렸습니다(21절).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다가도 자기 판단으로 안된다고 여겨질 때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성경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는 우리들의 내면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즉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도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열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에게는 늦게까지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이삭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 에서와 야곱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만에 리브가가 쌍둥

이를 잉태하였습니다(26절).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래서 축복이 다르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같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롬9:13).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우리는 반문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그두라를 통해 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9:8).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는 다윗으로 이어져 그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마1:1).

야곱의 이름은 후일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며,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창3:15)는 약속으로 최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은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등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천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3. 은혜의 선택 앞에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몇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째, 교만과 자량이 사라집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할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되던 그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 부와 명예와 청춘도 모두 포기하고 헌신할 각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힘써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택하신 구원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으로 이미 자녀된 자들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선택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 순례자 컬럼 ✦

여가 선용

물밑듯이 밀려오는 군중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해 본다. 일에만 몰두하여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마치 빨래비누 물에 닿아 없어지듯 자기소모만을 해오던 사람에게 여가를 갖고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 일과 닦쳐올 일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 살에 중요한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별 활일도 없이 소일이나 허던 이들이 휴가철이 되었으니 산과 들로 심지어는 외국으로 까지 놀러가자는 식의 휴가계획은 아무래도 낭비요 자기 기만인 것 같다. 소득보다 소비율이 점증되는 가운데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때에 무덤다는 이유만으로 휴가 붐을 조장이라도 하듯 언론사들까지 보도에 열을 올려 휴가 못가는 사람은 마치 무능력자라도 된 것처럼 만드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생산적인 휴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 휴가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시간은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앞을 지나고있다.

1995년도 교회학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작성하다보니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벌써 마흔 다섯 해 전인 1950년대의 여름성경학교. 무척이나 기대하며 기다리던 행사였다. 한달 전부터 붙여있는 포스터를 바라보고,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 교회 안팎을 청소하며 기다렸다. 그 때는 여름성경학교 때에 새벽기도회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평소에는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새벽기도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하였다. 자명종이 없던 시절, 부모님께서 깨워주시는 일에 의존했기 때문에 혹시 제 시간에 눈을 뜨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쳤고 5시 반이면 일어나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부르며 교회로 달렸다. 예배를 드리고 맨손체조를 하고 출석카드에 도장을 찍은 후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모두 성경학교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림그리기, 만들기, 선생님의 구연동화는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특별 프로그램이었다. 간식으로는 김이 모락 모락 피어나

▶ '95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며

"1950년의 여름성경학교"



권영복(집사, 유년부 부감)

는 감자가 나왔고, 때로 특별히 수박으로 잔치도 했다. 오후에는 강가에 나가 선생님과 고기를 잡으며 물놀이를 하다가 오후 다섯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다. 여름성경학교 기간동안 배운 것을 그다음 주일 저녁에 어른들 앞에서 해 보이면서 박수와 칭찬을 받았던 일들도 잊을 수 없다.

그 모든 일이 진한 추억으로 자리 잡아 4, 50년 지난 지금의 신앙생활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 있다.

요즈음도 여름성경학교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너무도 많이 변했다. 시대도 변했고 환경도 변했으니 무언가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굳이 변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변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 것이다.

농촌교회나 지역교회와는 달리 수도권 전역이 교구인 우리교회같은 경우,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성경학교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어쨌든 너무 짧은 기간, 너무 짧은 시간이 아쉽다. 방학 기간 중에 보충해야 할 공부, 과의 공부, 특별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부모들의 비협조가 안타깝지만 하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만한 비디오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안타깝다.

사막한 세상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 수 있는 결단의 계기가 되도록 신앙의 특별한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95 여름수련회 준비하며

여름에 바쁘신 예수님

천지창조시 옛세동안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되는 날 쉬시면서 안식하시고 우리에게도 안식 일만큼은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하셨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각 교회학교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게 된다. 서울교회 설립 후 첫번째 여름 휴가는 말 그대로 환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리라는 기대가 팍 차 있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교인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동해바다를 행선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비대해져가는 현대 교회들은 전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는 자체가 꿈과 같은 것이다. 하물며 첫돌박이 우리 교회가 겁도 없이 천여명의 식구들이 일시에 바다로 행진한다는 자체가 통이 큰 사람들의 결단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식지 않은 감격과



동해안으로 대이동하던 그 때가 그리워... (▲ 94년 전교인 가족수련회)

초대교회 같은 뜨거움을 간직한 채 그 열기를 높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해안으로의 전교인수련회 아이디어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극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전투 경험이 없는 군인같은 신세대들이었지만 우리는 즉시 머리를 맞대고 일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불가능한 것들을 목록을 만들어 다 열거하여 하나씩 지워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대이동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외치면서 열을 올렸다. 준비위원들의 실제적인 준비가 바빠짐과 동시에 같은 크기로 보조를 맞

추어주시 분이 계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셨다. 계획단계부터 성령을 통하여 빈틈없이 간섭해 주셨고 동해바다로의 대이동에 함께 하였고 집회가 진행될 동안 모든 프로그램에 함께 하셨다. 귀족처럼 고급스럽게 살던 사람들도 학교 교실바닥에서 잘 수 있었고,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금식밖에 따르는 길이 없다고 걱정하던 사람들도 하루 세끼 식사에 만족할 수 있었다. 넓은 운동장에서 하늘을 지붕삼고 드리는 저녁집회 시간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다고 간

증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던 여름수양회였으나 매년 여름이 되고 보면 또 가야 된다고 아우성이어서 작년까지 세 번이나 동해안 행을 강행하였다. 그 때문에 예수님도 많이 바쁘신 여름을 보내신 것이다.

금년 수련회는 교회 학교 부서별로 각기 다

른 날짜와 장소를 택하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저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께서도 동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 여름 예수님께서도 더욱 바쁘실 것 같다. 예년처럼 동해안에 한 번만 가시는 것으로는 어렵 없으시기 때문이다. 유년부의 성경학교에도 가서야 하고 청소년들의 수양회가 있는 깊은 산속 기도원에도 가서야 하지 않겠는가?

무더운 여름, 주님과 함께 바쁘게 지내다 보면 머지않아 가을이 오겠고 예수님도 여유있는 결실의 계절을 만나게 되시리라. 내년 여름에는 덜 바쁘신 예수님이 되도록 동해안 수양회를 계획해 봄이 어떨지?



김광신 (장로, 청년부 부장)



고등부 - “가자, 가나안 농군학교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다. 모처럼 고등부만의 여름수련회를 가지게 되어 좋은 장소를 모색하는데 힘을 쏟았다.

사실, 장소를 확정하는 일이 다른 부서에 비해 조금 늦은 것이 청소년에게 유익하면서 실제적이고도 식상하지 않은 수련회를 기획하느라고 너무나 심사숙고 하다보니 그랬다면 변명일까?

어쨌든, 몇개월 전에 신청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고등부 전체가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는 항상 동의하지만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어렵고, 구체적인 실천의 기회가 없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이번에 가지게 된 기회는 특별히 고등부 학생들에게 시기적절한 수련과정이 아니라 아니할 수 없다.

과외수업과 입시준비에 매여 원치 않는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이번만은 해방을 받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보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새 사람되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해 보자.

화이팅! 고등부 학생들여!

서문석 (집사, 고등부 부감)

중등부 -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그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왔다.

산새들의 울음 속에서 새벽을 깨우고
울창한 숲 속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초록의 잔디 위에서 우리의 몸을 부딪히고
전신에 흠뻑 젖은 땀을 개울물에 녹이는
그런 신나는 수련의 장으로 달려가보자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찌우고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확신에 찬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련의 장으로 달려가 보자.

자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중등부 시절에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을 맞을 준비를 해보자.

은밀하게 나눌 주님과의 대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임상헌 (집사, 중등부 부감)

■ 광야의 소리

그리스도인의 여/름/나/기 - ①

웃차림 -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의 정신은 도대체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자세는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장마철인 요즘은 높은 온도와 습도가 만나 덥고 눅눅하고 끈적끈적하여 실외라기 하나라도 멀리 떨어 버리고 싶으리만치 우리의 일상엔 그야말로 불쾌감과 싸움이다. 성격은 웃차림에 대해 단정하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걸을 치장하는 것 못지 않게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힘쓰는 일을

규정하고 있다 (딤후 2:9 - 10; 벧전 3:3 - 4). 아슬 아슬한 짧은 치마, 끈만 남은 웃옷... 점점 더 웃을 만드는 데에 소모되는 천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요즘의 의상의 추세인 듯하다. 그렇지만 성도들까지 노출이 심한 웃, 외국 잡지에서나 볼 수 있을 것같은 유별난 웃차림으로 예배당에 드나드는 것을 바라볼 교회 안팎의 시선을 생각해 보았는가?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앞에 나오시는 우리의 모습이 반바지에 샌들차림이라도 사랑하시

겠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웃차림을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거저 편안한 웃차림으로 나오는 것이 더위를 잊고 안정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달리 반박할 말이 없겠으나,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3 - 24)는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자. 답다, 더위! 정말 답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천국시민의 품위는 잃지 말자.

■ 토막소식 ■

부목사 지원자 예상보다 많아

우리교회는 부목사 0명을 청빙하기로 하고 지난 15일로 원서를 마감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원서를 제출한 목사가 국내외로부터 예상 외로 많아, 서류 전형 후 통과된 자에 한해서만 면접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종 결정은 오는 24일(월) 면접을 통해 당회가 하기로 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이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2. 농어촌 교회의 자립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4. 남은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